임제가 깨달음 얻은 인연은…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③ 황벽의 매를 맞고 떠난 사연

행록(行錄)은 임제의 수행이력을 설해 놓은 장이다. 이 장에는 먼저 임제의 깨달음을 얻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임제가 황벽 문하에 가서 수행할 때이다. 임제의 정진하는 자세에 감동한 한 수좌가 임제에게 물었다.

"스님은 이곳에 온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3년 되었습니다."

"황벽선사에게 가서 법을 물은 적이 있는가?"

"아직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라서 못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핵심 대의입니까? 하고 물어 보게나."

임제가 황벽선사를 찾아가서 시킨 대로 물었다. 그러나 묻는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은 주장자로 임제를 때렸다. 임제는 맞고 그냥 나왔다.

수좌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임제는 "저의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장자로 저를 때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시 가서 물어보도록 하게"

임제는 다시 황벽 스님에게 가서 법을 물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장자로 때렸다. 똑같이 임제는 세 번을 물으러 갔다가 세 번을 맞았다.

임제는 황벽 회상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수좌에게 가겠다고 말했더니 수좌는 가더라도 하직 인사를 드리고 가라고 권하였다.

임제가 황벽에게 하직 인사를 갔을 때 황벽은 임제에게 말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네는 고안(高安)의 강기슭에 있는 대우 스님의 처소로 가라. 자네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거야."

임제는 대우선사를 찾아갔다. 대우선사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황벽 스님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제가 세 번이나 불법의 대의를 물었다가 세 번이나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황벽이 그렇게 친절하게 자네를 위해 잘 지도했거늘 잘못을 모르겠다니?"

임제는 대우 스님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황벽 스님의 불법이 별거 아니군."

이를 본 대우 스님은 "이 오줌싸개가 아까는 잘못이 있느니 없느니 하더니 이젠 황벽의 불법이 별 것 아니라고? 네가 무슨 도리를 알았느냐? 어서 말해 봐."

임제는 대우의 옆구리를 세 번 쥐어박았다. 대우는 떨쳐버리고 "너의 스승은 황벽이다.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상이 임제의 대오인연(大悟因緣)을 설한 부분이다.

행록에는 임제 스님이 여러 스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이 중 방(棒)으로 유명한 덕산 스님을 만났을 때다.

덕산 스님이 오늘은 피곤하다고 말하자 임제가 무슨 잠꼬대를 하고 있습니까? 한다. 덕산 스님이 곧 방망이로 쳤다. 임제 스님은 덕산 스님이 앉아 있는 선상을 넘어뜨려버렸다. 덕산은 가만히 있었다.

임제 스님이 운력(작업)을 하면서 괭이로 땅을 파다가 황벽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괭이를 세운 채로 서 있었다. 황벽 스님이 보고 "이 사람아, 피곤한가?" 했다.

임제가 "괭이도 들지 않았는데 피곤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황벽이 방망이로 때렸다. 임제는 방망이를 빼앗아 황벽 스님을 밀어 넘어뜨렸다. 황벽 스님은 유나(維那)를 불렀다 "나를 좀 일으켜 주게."유나스님이 다가가 일으키면서 말했다. "화상께서는 어찌 저 미친놈의 무례함을 용서하십니까?" 황벽 스님은 일어나서 유나스님을 방망이로 때렸다. 임제 스님은 괭이질을 하면서 말했다.

"제방에서는 화장을 하지만 나는 여기다 산채로 묻어버린다." 이것이 '활매(活埋)' 의 이야기이다.

마지막 장 탑기(塔記)는 임제 스님의 탑을 세우면서 쓴 기록이다. 함통(咸通) 8년(867) 임제가 입적한 후에 문인들이 대명부 서쪽에 탑을 세웠고, 당시 황제 의종이 혜조(慧照)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탑기는 제자 연소(延沼)가 쓴 것으로 되어있다. 〈조계종 고시원장〉

마음이 맑으면 곧 '정토'



세상 속 경전읽기

③ 자성미타(自性彌陀) 유심정토(唯心淨土)

10여 년 전 고성 건봉사(乾鳳寺)에 들른 적이 있다. 1998년 8월, 건봉사 제6차 염불만일회 입재 때 청화 스님 법문을 듣기 위해 처음 찾았던 곳으로, 두 번째 방문이었다.

금강산 건봉사는 남한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구려 사찰로, 520년(고구려 안장왕 2년) 아도(阿道) 화상이 창건할 때의 절 이름은 원각사(圓覺寺)였다. 758년(신라 경덕왕 17년) 발징(發徵) 화상이 중건하고, 정신, 양순 등 31인의 승려와 향도香徒 1,828인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베풀었다. 만일이면 대략 27년 5개월이 된다. 787년 만일회향 때에는 염불만일회에 참여했던 스님 31인 모두가 염불 가피로 극락에 왕생하였다. 그 뒤 참여했던 많은 신도들이 차례로 왕생했다고 하며, 이때부터 건봉사는 아미타 도량이 되었다. 1358년(고려 공민왕 7년) 나옹(懶翁) 화상이 중건하여 건봉사로 개칭하여 염불과 선, 교의 수행을 갖춘 사찰이 되었다고 한다. 발징화상의 염불만일회 이후 1,000년 이상 지난 조선조 후기에 제2차~제5차 염불만일회가 이루어졌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대부분 건물이 불에 타 완전 폐허가 되었으나, 넓은 가람터와 여러 단의 석축(집터)이 대가람이었음을 말해준다.

불이문을 지나 밋밋한 길을 오르다 보면 19개의 돌계단이 나온다. 돌계단 끝에 올라서면 좌우에 석주가 있다. 우측(북쪽) 석주에는 '방생량계(放生場界)', 좌측(남쪽) 석주에는 '용사활지(龍蛇活地)' 라고 한자로 새겨져 있다. 석주의 다른 면에는 십바라밀(十派羅蜜) 문양 중 일부인 원월(圓月;보시), 좌우쌍정(左右雙井;방편), 성중원월[星中圓月;지(智)] 등이 새겨져 있다.

석주 뒤로 연지(蓮池)가 펼쳐진다. 연지 건너에는 일자 건물인 낙서암(樂西庵)이 있다. 법상종에서 십바라밀이 보살 십지에 배대(配對)되니 이 연지를 보살지(菩薩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돌계단을 경계로, 계단 아래 하계(下界)는 예토(穢土)이고 계단 위 상계(上界)는 피안의 정토(淨土)인 셈이다. 보배연못(보련지寶蓮池)을 향한 19계단 중 18계단을 오르며 근진식(根塵識) 18계(界)의 번뇌를 하나하나 소멸하여 마음이 청정해지면, 19계(階)에 도달한다. 19계(階)는 생사를 해탈하고 성범불이(聖凡不二)의 '방생량계' 에 진입하는 발판이다. 상계(上界)인 '방생량계' 는 용과 뱀, 곧 성인과 범부가 둘이 아닌, 활력이 넘치는 '용사활지' 이다.

이쯤에서 '放生場界 龍蛇活地' 의 뜻을 다시 되새겨볼 만하다. '이생[異生;중생 또는 범부]이 탐닉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18계(界)를 놓아버린 경계에서, 용[龍;성자, 보살]과 사[巳;범부, 중생]과 함께 사는 곳' 이라는 뜻이다. 즉 이곳은 10바라밀을 닦는 보살이 사는 곳이며, 동시에 보살이 있도록 하는 중생이 함께 사는 곳이다.

〈유마경〉 '불국품' 에서, '마음이 맑으면 곧 정토' 라고 하여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역설하였다.

"만약에 보살이 정토(淨土)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곧 불국토도 깨끗하니라."[若菩薩欲得淨土當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

〈육조단경〉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곳에 나려고 하지마는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정토(淨土)도 깨끗하다' 고 말씀하셨느니라."[迷人念佛生彼。悟者自淨其心。所以言佛隨其心淨則佛土淨。]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㊾ 이해의 길 29

윤회, 믿을까 말까?

언젠가 출가의 연을 맺은 벗이 전생의 내 모습이 보인다며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 친구는 전생에 내가 티베트의 학승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놀랍기도 했지만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다. 벗의 말처럼 내가 전생에 승려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이는 검증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삶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업과 윤회가 불교의 고유 사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불교가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의 고유 신앙이다. 그들은 착하게 살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태어난다는 지극히 소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불교는 그들의 신앙을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특히 부파불교에 이르러 업과 윤회는 하나의 학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반복된다는 윤회설은 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업이라는 행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가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파불교에 이르면 전생과 내생이 실제로 있다고 보고 지옥이나 아귀, 축생의 세계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그들은 인간의 삶이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부파에서는 태어나는 순간인 생유(生有)와 삶을 영위하는 기간인 본유(本有), 삶을 마치는 순간인 사유(死有), 그리고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인 중유(中有)를 설정하였다.

윤회와 관련해서 중유라는 과정이 주목된다. 이는 사람이 죽은 후 살면서 행한 선업과 악업을 계산하는 시간인데, 보통 10일에서 49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49재(齋)를 지내는 모습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전체 삶이 평가되고 그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도윤회(六道輪廻), 즉 지옥과 아귀, 축생, 수라, 인간계, 천계가 바로 그것이다. 살아서 선한 행위를 하면 죽어서도 선한 결과를 받고 현생에 악한 행위를 하면 내생에도 악한 결과를 받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윤회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생의 업이나 팔자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삶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또 다른 형태의 숙명론일 뿐이다. 언젠가 개신교로 개종한 한 불자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사람은 힘든 일이 있으면 절에 가서 상담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말이 상처가 되어 불교를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개종까지 했다고 한다. 윤회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언제부턴가 윤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힌두교의 산물인 업과 윤회사상을 불교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윤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붓다가 강조한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이를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칫 붓다가 부정한 영원불변하는 아트만(Atman)을 인정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을 오히려 윤회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윤회와 관련해서 죽음 이후의 문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이를 실존적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매 순간 윤회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누군가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마음은 이미 금수와 아귀, 수라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깊은 명상 속에서 고요를 느낄 때 그곳은 천계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윤회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하면 불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불교는 무조건적 믿음에 철학적 메스를 가하는 합리적 종교다. 윤회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중·대형 사찰들의 치명적 실수

고가의 바가지 음향시설에 복잡, 불필요한 엉터리 부속을 잔뜩 채움으로 1.사용불편 2.고장많음 3.저질소리 4.원인은 산사 스님들의 어두운 정보력을 이용한 업자들의 농간 때문!

염불은 청아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음율에 염불을 실려야 하며 천수경을 수 천번 반복해도 절대로 재탕 시비 안하는 원인은 오직! 소리 가락에만 심취하기 때문!

최신 디지털시스템의 장점 : 1.기존시설과 현장소리 비교시 장난감 차이! 2.가격 1/3, 3.원하는 소리만드는 기능 내재, 4.설법은 성우소리! 5.염불은 마이크와 2m에서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 6.최신 간편 간단시스템으로 앰프다루기 1초! 고장없음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방문시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장기할부 가능)

▣ 소리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HITEC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